

보도일시

2026. 7. 29.(수)

배포

2026. 7. 29.(수)

동해시 감추 해변 이용객 불편 해소

- 동해해수청, 여름철 해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해초류 제거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7월 29일(수) 동해시 감추 및 한섬해변에서 여름철 호우기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바다 해초류의 수거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이라는 주제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정화행사와 연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주간(7.20~7.31)’ 운영의 일환이었다.

이번 청소는 무더운 날씨에도 동해시, 해양환경공단(KOEM) 등에서 30명 정도의 많은 직원이 참여하였다.

감추 및 한섬해변은 동해시 천곡동 도심에 근접하여 여름철 6~9월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호우기에 유입되는 해초류가 건조되면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을 유발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항 인근에 위치한 비지정해수욕장인 감추 및 한섬해변의 청정해양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33-520-6231)
		담당자	주무관	홍병기 (033-520-6233)

<감추 해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사진>

